


도쿄 대도시권 도시농업의 상품화와 그 지속성



기구치 도시오
수도대학도쿄
도시환경과학연구과

A photograph of a rural landscape. In the foreground, a concrete-lined stream flows from the left towards the center. To the right of the stream, there is a field with several large haystacks supported by wooden stakes. The background features a valley with scattered houses and a large, forested hill under an overcast sky.

도쿄대도시권의 rurality의 상품화
—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지케지구의 사례 —

Rurality란 무엇인가

- rurality란 농촌다움의 총체적인 성격
- rurality을 구성하는 요소
 - 생태적 기반(지역의 자연환경, 토지기반, 토지조건, 농지)
 - 경제적 기반(농업생산, 농업적 토지이용)
 - 사회적 기반(농촌 커뮤니티, 생활조직)
 -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 rurality 형성
 - 구성요소의 하나의 변화는 유기적인 연계에 영향을 미치며, rurality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도시와 그 근교의 rurality의 성격과 문제

- 생태적 기반(농지나 사토야마*, 자연지, 녹지 등)의 취약화→농지나 사토야마의 적정이용과 관리
- 대도시에 의존하는 경제적 기반
 - 도시적 토지이용의 무질서한 확대
 - 대도시에 의존하는 경제활동
- 커뮤니티의 혼재화에 의한 사회적 기반의 변용
 - 전통적인 지역커뮤니티나 생활문화의 쇠퇴
 - 개개의 지역 정체성 쇠퇴
- 지역고유 자원이용의 감소
 - 지역의 토지자원이나 인적자원, 문화적자원의 이용을 포기

* 사토야마 (里山:마을숲)

1964년의 지케췌 주변의 경관(토지지리원 공중사진)



写真右側が北を示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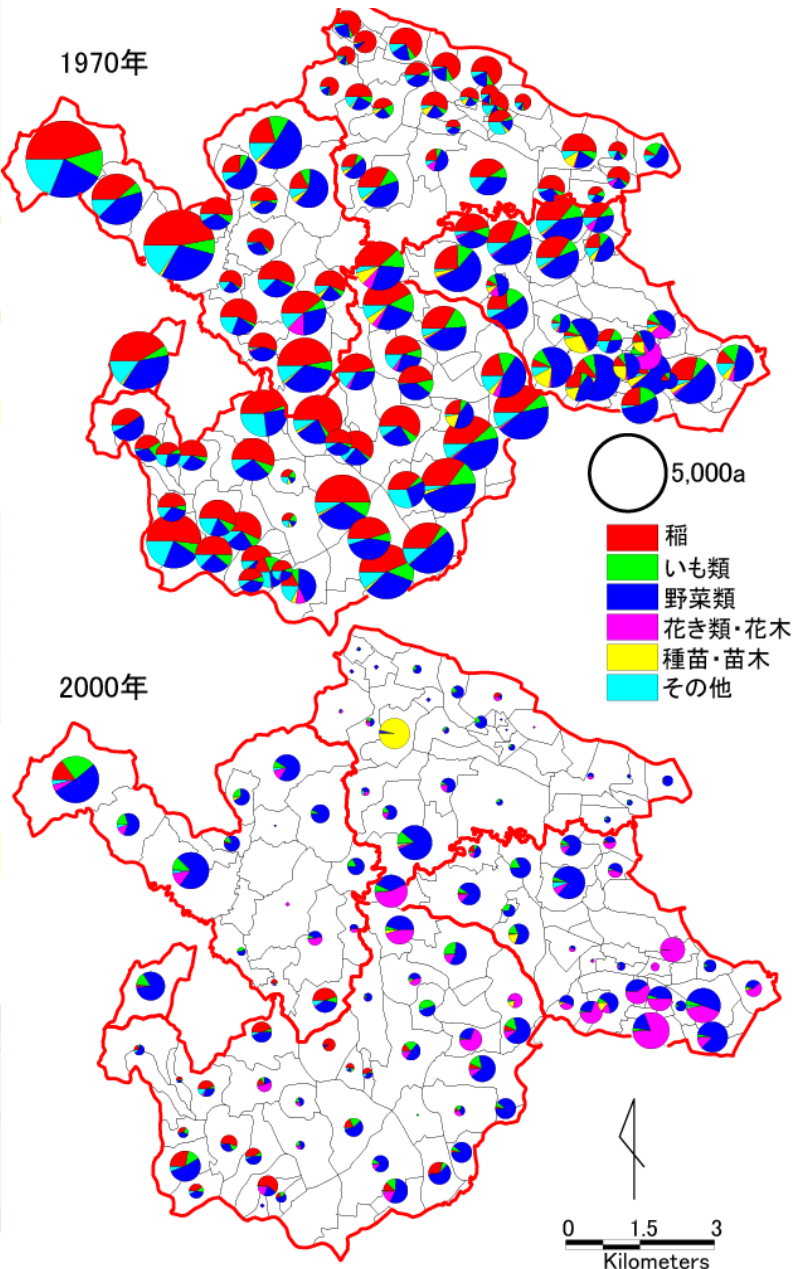
평지림이 농촌경관으로 다수 분포하고, 습지논도 발달되어 있다

2004년의 지케쪼 주변의 경관(토지지리원 공중사진)



대지상의 평지림은 벌채되어 주택지로 변화하고, 삼림면적은 급감했다. 주택지의 확대에 의해 논이나 밭도 축소되었다.

지케지구 주변의 작물별 수확면적의 변화



- 1970년; 많은 집락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져, 벼농사에 이어 채소류의 수확면적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음. 지케지구 주변의 농업은 겸업농가에 의한 벼농사와 채소를 중심으로한 밭농사로 특징지워짐.
- 2000년: 작물수확면적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해, 그 중에서도 벼농사의 감소가 현저하다. 작물수확면적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집락은 쓰루미강변으로 보이며, 채소나 화훼재배를 중심으로한 근교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케지구의 농촌공간의 상품화

도시농업의 과제: 농가수 감소와
경영경작지면적의 축소

→ 아름다운 전원경관을
보전하면서 토지, 사람을 포함한
농촌자원을 활용한다.

→ 관광농업의 추진 등으로 농가의
생활안정과 지역의 취업기회의
증대에 노력하며,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 새로운 주민, 어린이 등이 자연,
농업, rurality을 체험함으로써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며 농촌과 도시와의
상호이해를 심화시킨다.



사토야마와 늪지 보전에 의한 rurality의 상품화



지역계획에 의해 농촌공간을 보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짐

rurality의 상품화에 따른 생태적 기반과 생물다양성의 유지



농촌공간의 보전에 의해 생태계가 보전된다.

rurality의 상품화에 의한 농업유지와 다기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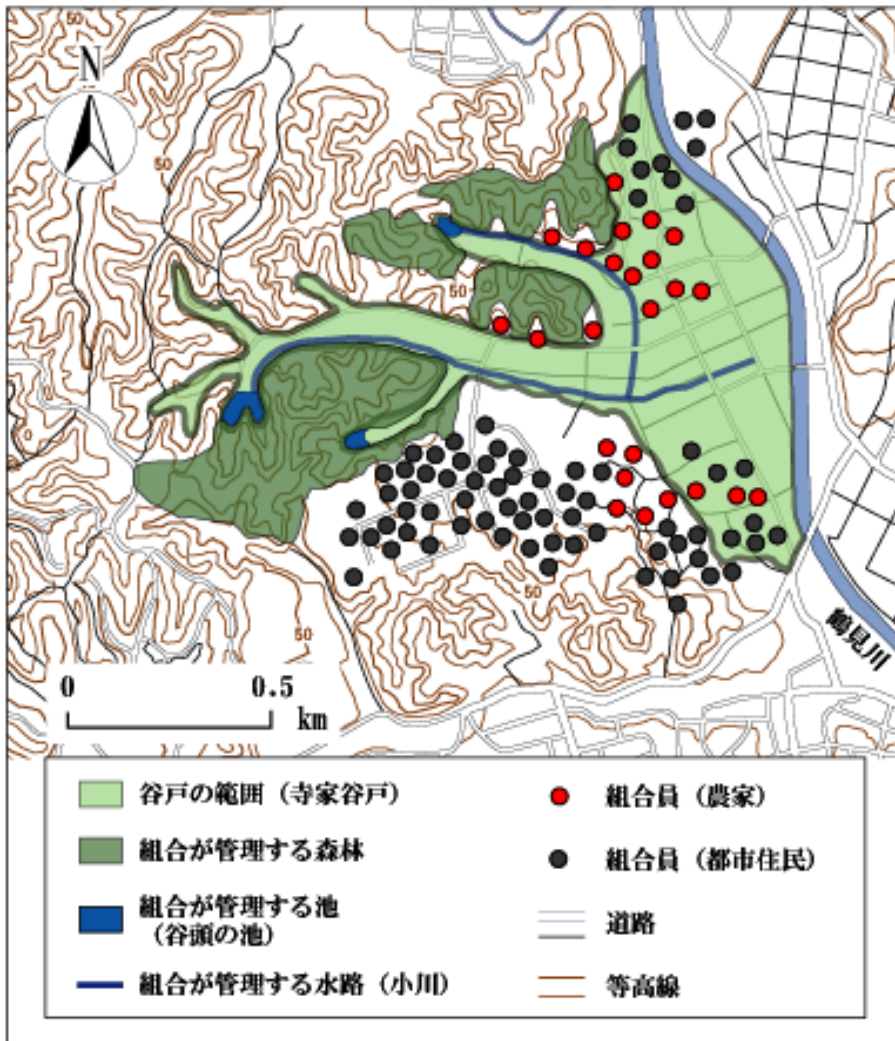
다기능화와 다품목 소량생산에 의한 도시농업의 유지

rurality의 상품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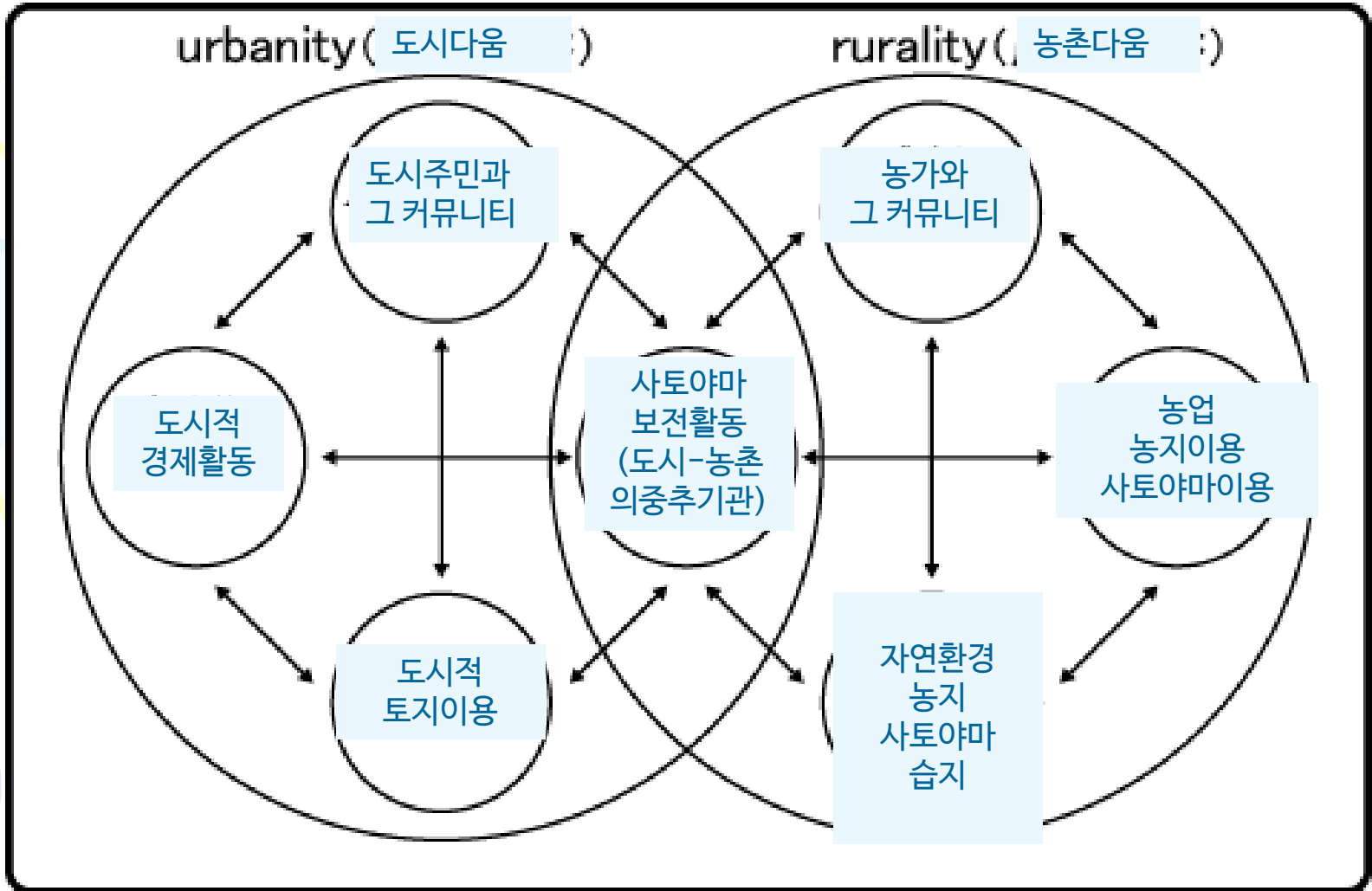
다품목 소량생산에 적합한 농산물직매소에 기초한 도시농업의 발전

농촌공간의 유지주체로서의 지케후루사토마을 체험 농업진흥조합



- 1981년에 농림수산성의 자연활용형 농촌지역구조개선사업 (가나가와현·미도리노사토 정비사업)이 농촌공간의 상품화의 계기.
- 1984년에 설립된 지케후루사토마을 체험농업진흥조합이 농촌공간의 상품화의 주역
- 농촌의 생태적기반과 경제적기반 및 사회적기반을 상호 연관시켜, 루럴투어리즘의 공간으로 지속.
- 진흥조합: 농가23호, 도시주민 (서포터): 70~80호

대도시권의 rurality의 상품화와 그 지속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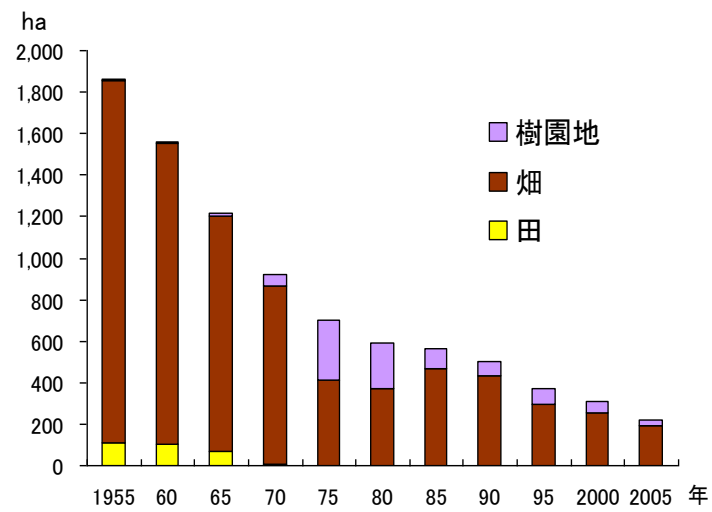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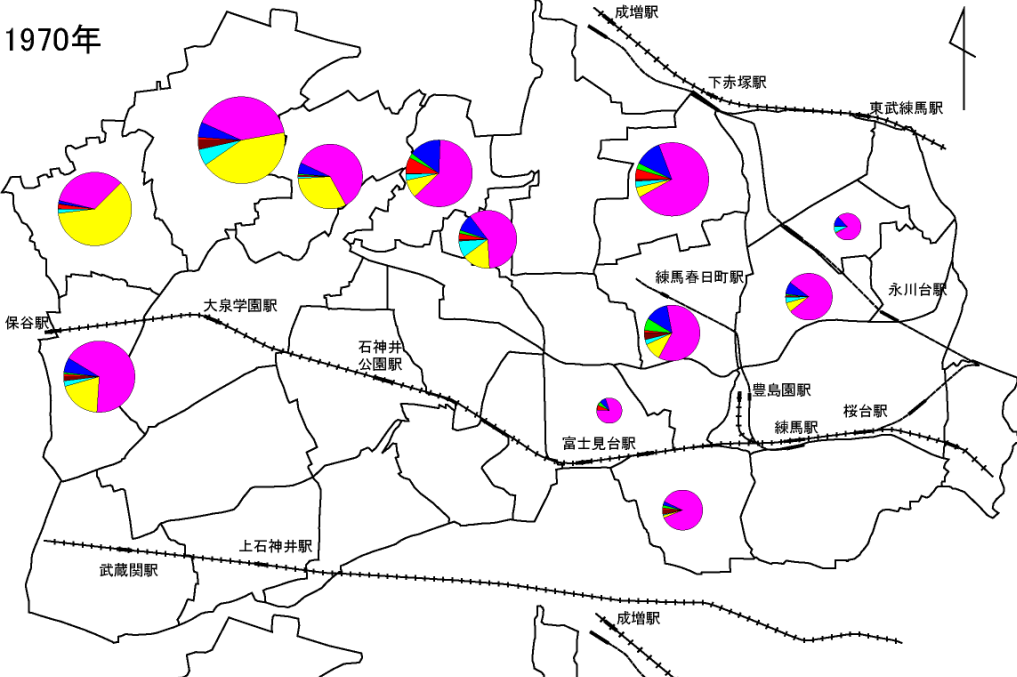


사회적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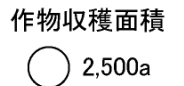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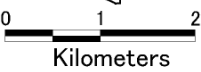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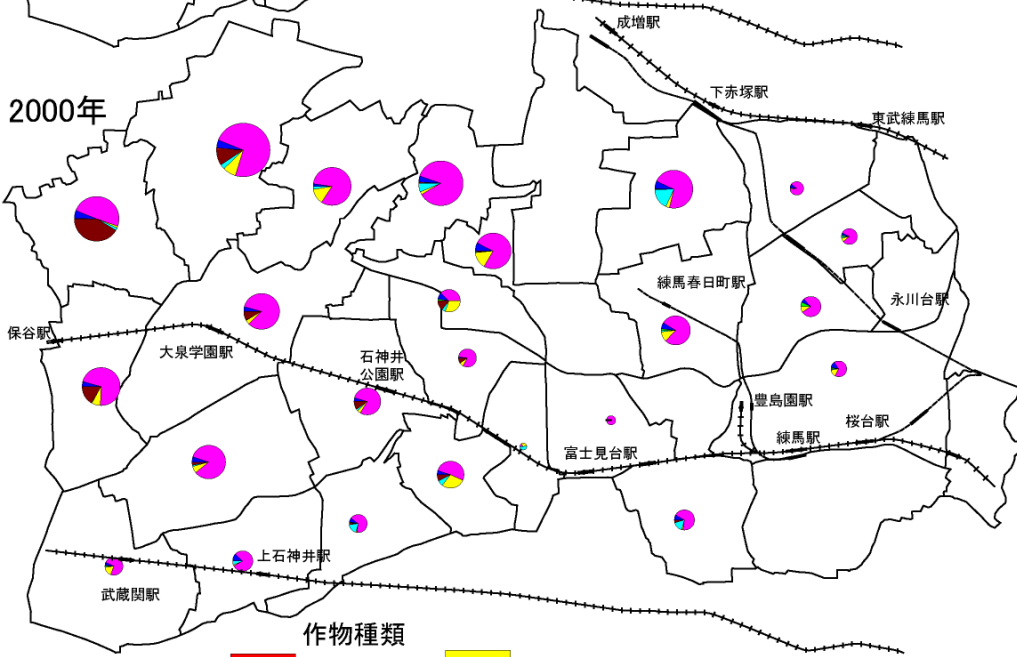
도쿄 대도시권의 농업체험의 상품화 — 도쿄도 네리마구의 사례 —



1970年



200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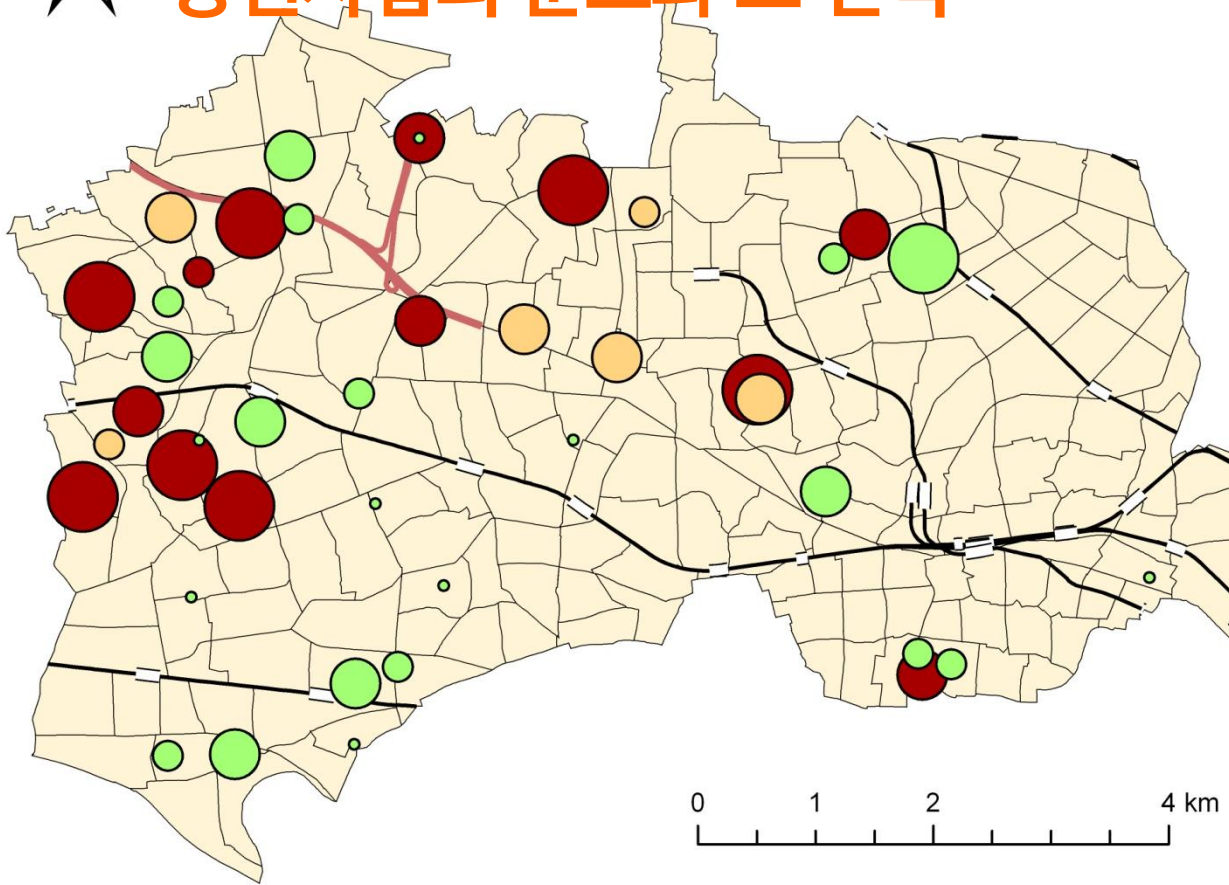
농림업센서스·집락카드에 기초해 작성

- 경영경작지면적: 1955년부터 약90% 감소
- 밭농사 중심의 경영경작지의 이용
- 현재는 네리마구 서부를 중심으로 밭에서 채소류의 생산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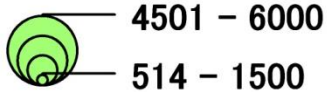
네리마구의 농지면적의 추이

네리마구의 농원의 분포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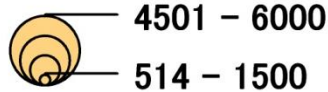
네리마구의 도시농업유지를 위한 농원사업의 분포와 그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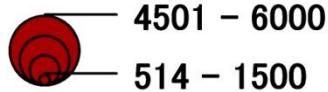
区民農園 (m2)



市民農園 (m2)



農業体験農園 (m2)



— 高速道路

— 駅

— 鉄道



네리마구 제공자료에 의해
작성

농업생산자(농원주)의 체험농원의 메리트

①이용자로부터의 이용료→안정된 수입

1구획 43,000엔／10개월

10a당 100만엔 이상의 매출

②노동시간의 감소

평균40a당 약25%의 감소

③생산녹지에서서 영농행위→농지과세, 상속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이용자와의 교류→보람

⑤농원주 모임의 네트워크→협조와 경쟁



이용자의 체험농원의 메리트

① 고품질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다.

② 농작업에 대한 지식의 증가·

재배기술의 향상

← 농가의 지도를 받으며
작업할 수 있기 때문

③ 자연(흙)에 접하는 기쁨

④ 농원주, 이용자와의
새로운 만남/교류의 기쁨





기타 체험농원의 메리트

① 새로운 산업의 대두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레스토랑 개업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특산품 개발

② 구민(전체) 『2007년도 구민의식의향조사보고서』

농지를 남겨야 한다는 의식이 높음(20~30대)

③ 행정운영

구민농원·시민농원에서 농업체험농원으로

「네리마모델」추진의 지자체로서의 평가



네리마의 채소식재료를
사용한 지역생산 지역소비
레스토랑



도쿄 대도시권 농산직매소에 근거한

농업생산의 상품화

—도쿄도 고다이라시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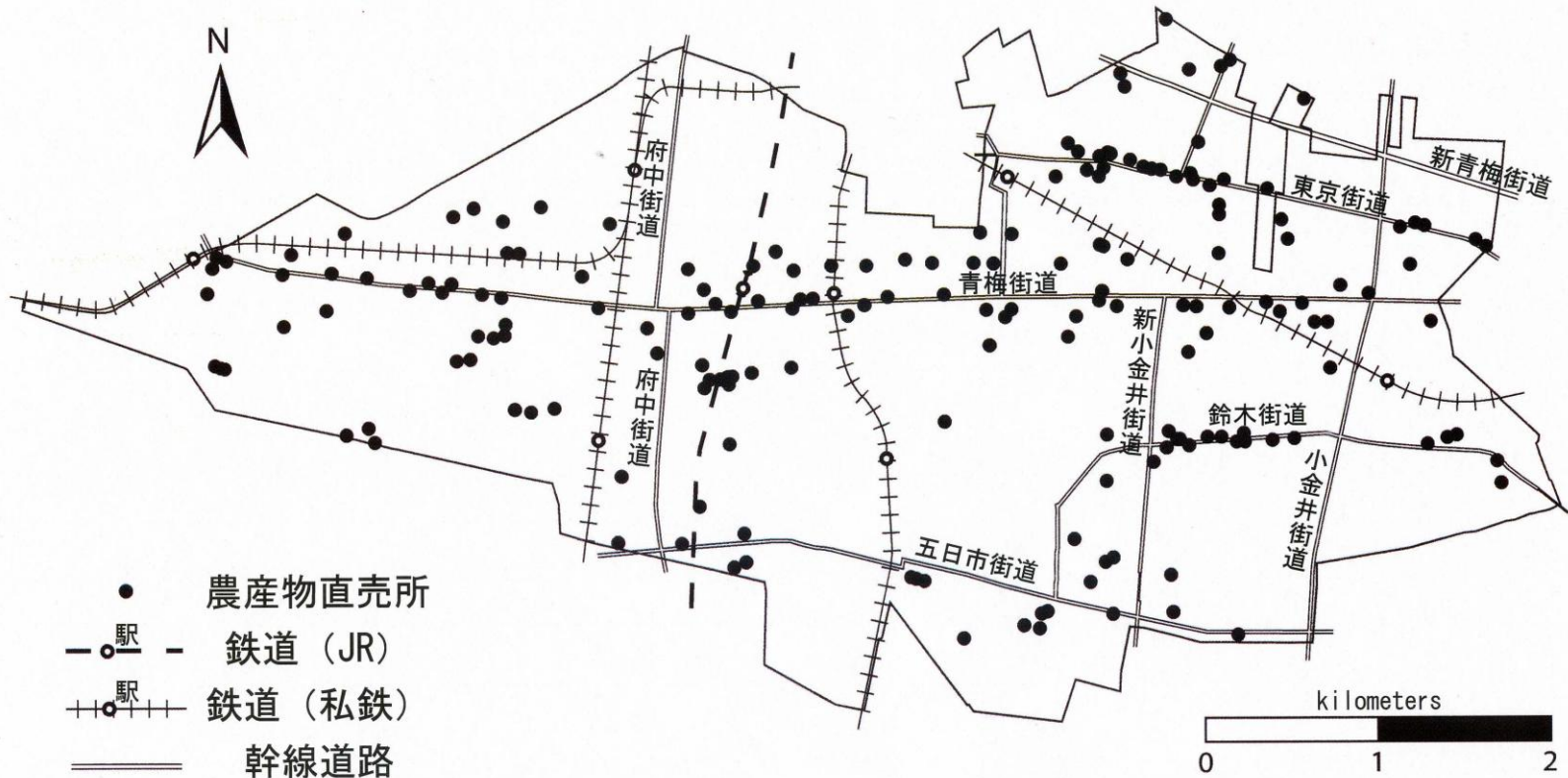
고다이라시의 농업의 변화

- 1950년대 이전, 보리류 + 감자류 + 무를 재배하는 전통적인 밭농사 복합경영이 유지되었다(무사시노 대지의 토지조건에 적응)
- 1960년대 이후, 뿌리채소나 잎채소 재배가 발달해, 농업적 토지이용의 중심이 되었다(대도시 시장에 근접한 이점을 살려)
- 1980년대가 되자, 다양한 채소의 재배가 발달
- 다품목 소량생산과 다모작에 의한 야채재배의 발달(도시근교농업의 전형적인 특징)
 - 소규모 경영 경작지에 대응한 농업
 - 연간노동의 평준화
 - 농업적 토지이용의 유지
 - 대도시 시장출하의 곤란(저렴하고 대량의 채소생산을 할 수 없다)
- 다품목 소량생산에 의한 채소의 시장으로서 농산물직매소(시내 도시주민을 위한)이 1990년대 이후에 다수 입지



- 고다이라시의 농가1호당 경영경작지 면적은 소규모
→다모작에 의해 연경영면적을 확대시킴
→다품목 소량생산에 의해 다양한 채소를 도시주민에 공급
- 도시화에 의해 농업적 토지이용의 지속은 곤란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를 도시주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활로
→도시주민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장으로서 직매소가 중요

고다이라시의 농산물직매소의 분포(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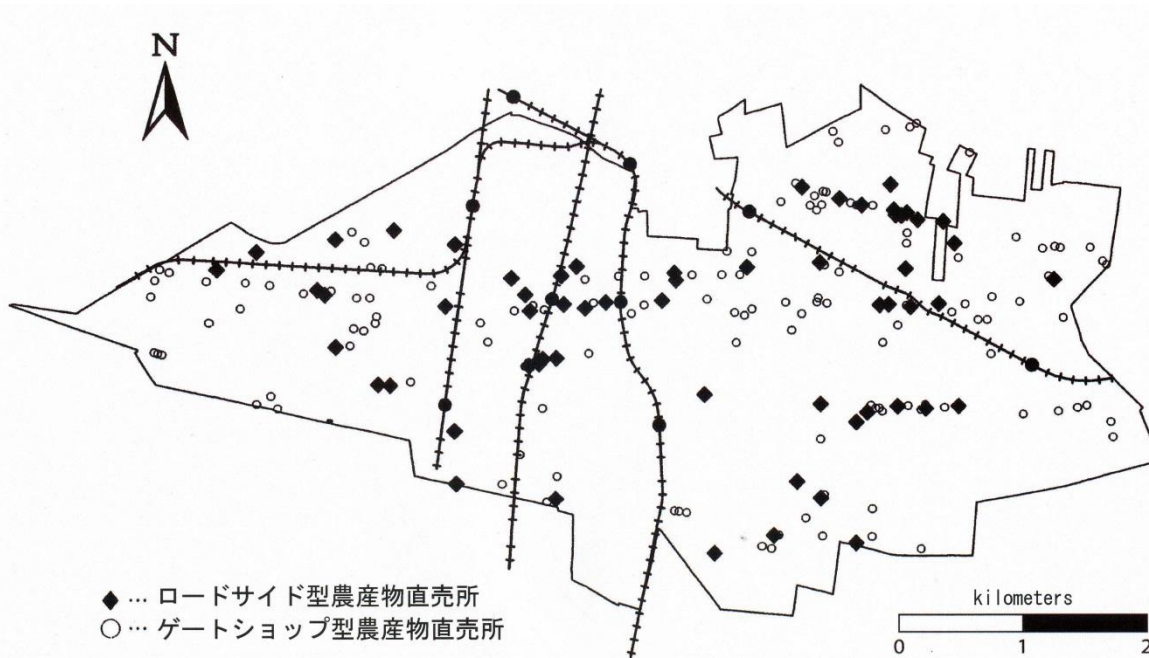


• 고다이라시의 농산물 직매소는 시 북부에 많이 분포한다(농가나 농업적 토지이용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 많은 농산물 직매소가 간선도로변에 분포하고 있다(도시주민의 접근 편리성을 위해)

고다이라시의 농산물직매소의 2가지 유형

농산물직매소의 분포나 입지패턴으로부터 2개의
타입으로 유형화한다: 로드사이드형(도로변형)과
게이트숍형(마당형)



- 로드사이드형(도로변형)
 - 교통의 편리성을 보다 의식해 도로변에 입지 (56개소)
 - 상설 시설과 유인경영 (다수 농가의 공동경영이 많음)
 - 간이주차 설치 (지역 주민뿐 아니라 통과교통고객도 대상)
 - 도시주민을 위해 다양한 농산물 판매
 - 지역의 농산물뿐 아니라 타산지의 농산물도 제공 (직매소의 품귀현상을 회피함)
 - 사철 경영과 농산물의 제공



• 게이트숍형 농산물직매소

- 농가 마당이나 자택부근의 농지 끝에 입지
- 반드시 간선도로에 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간선도로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
- 주로 주변 지역주민이 이용
- 간이시설 또는 가설시설이며, 무인 경영(주로 개인경영)
- 무인으로 경영이 된다는 보증
(요금지불에 대한 농가와 도시주민과의 암묵적인 양해가 성립)
- 직매하는 농산물의 공급량과 품종수가 적음(품절이 되는 일이나 구입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없는 일도 다반사)
- 직매하는 농산물의 계절차이나 계절적 편차가 크다
- 직매소 수입은 부업적 수입





농산물직매소의 역할

- 소량으로 불균일한 농산물의 시장으로서의 역할 (소규모 농지와 적은 농업노동력으로 대량의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곤란)
- 신선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
- 농업적 토지이용을 지속시키는 역할
- 근교농업의 의의를 재인식시키는 역할



도시주민이 본 농산물직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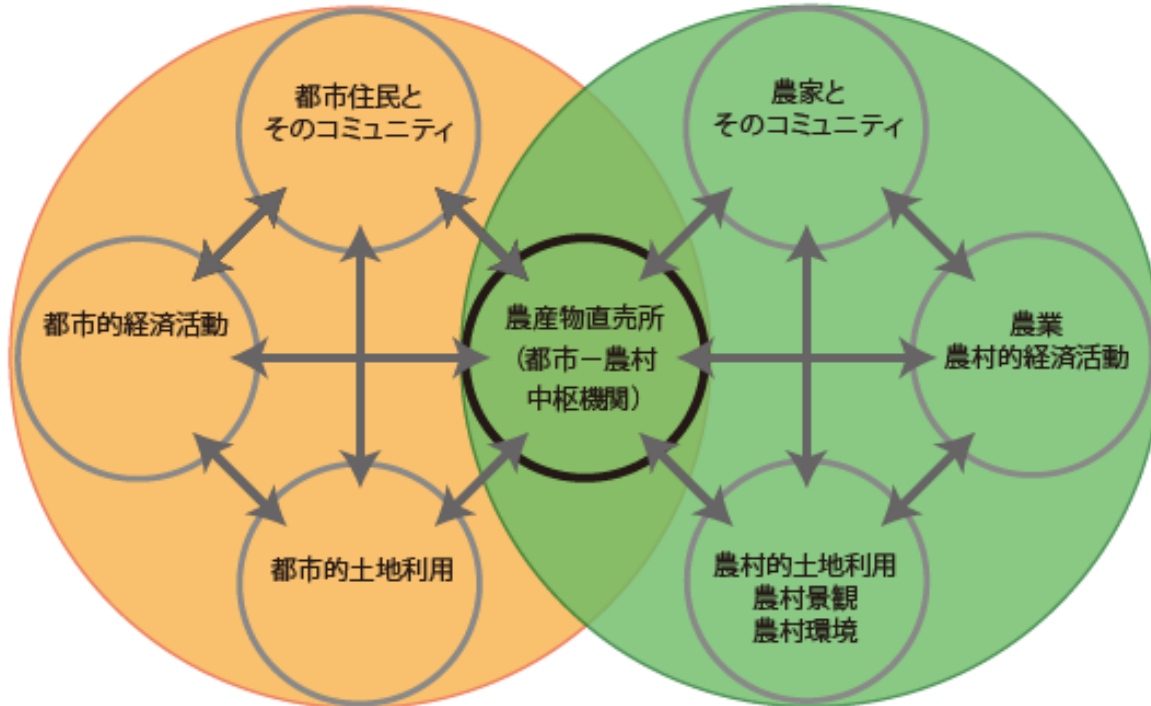
도시주민은 신선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에 만족함과
동시에 다양한 농산물의
품종수에도 만족하고 있다.
농산물직매소는
다품목소량생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시설이
되고 있다.

- 농산물을 직접 도시주민에게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가와 도시주민과의 교류의 장을 제공(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역할)
 -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정보를 공유
 -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향토의식의 고양
 - 전통적인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계기

고다이시시의 농산물직매소의 새로운 역할과 의의

urbanity(都市らし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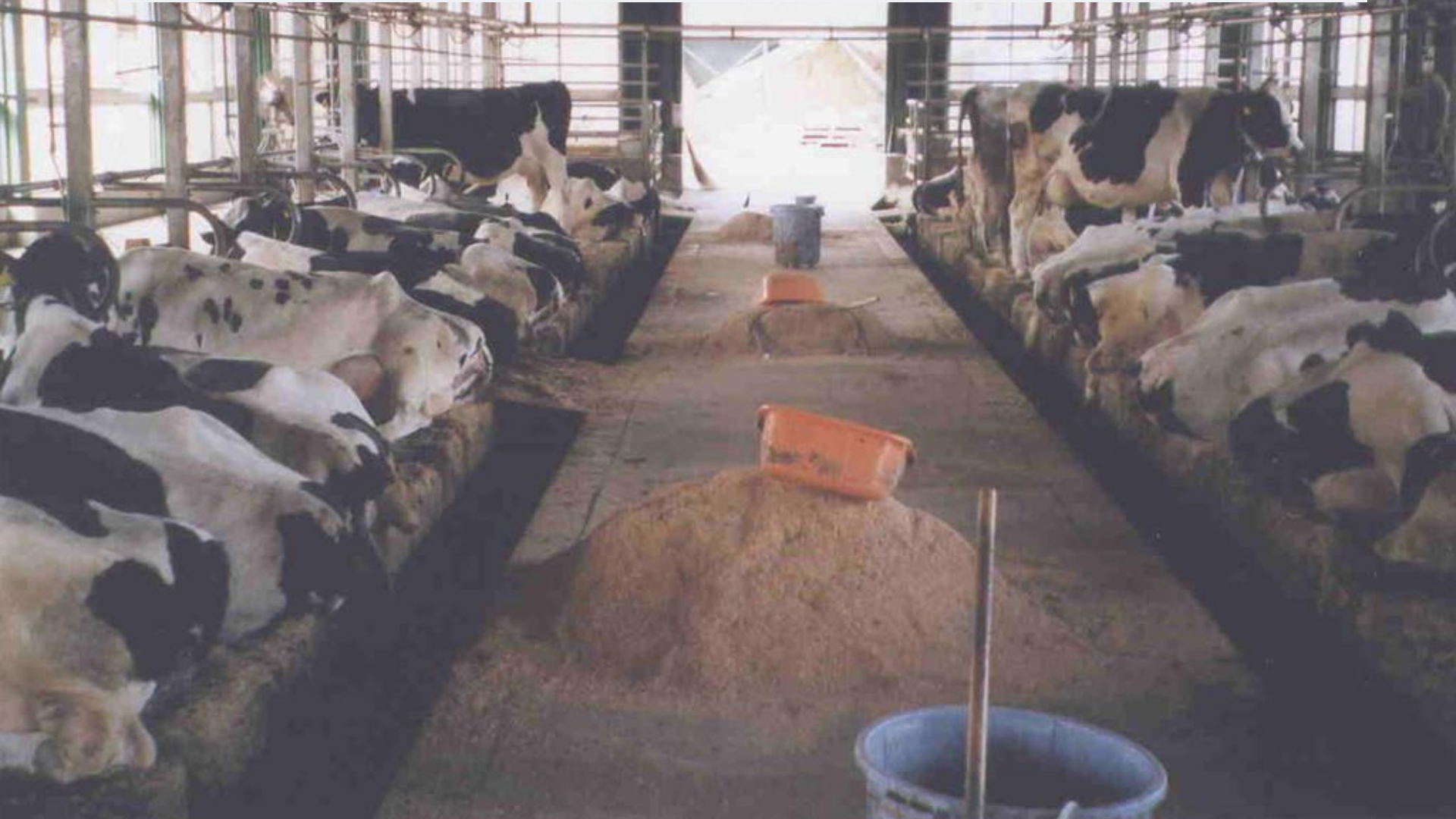
rurality(農村らしき)



- 종래의 농촌다움 (rurality)은 도시다움 (urbanity)의 확대와 함께 저하
- 농산물직매소: 농업의 유지 → 농촌경관·환경의 유지 → 농촌커뮤니티의 유지
농산물직매소는 rurality와 urbanity을 연결시켜, 그것들을 공존시키는 핵심기관으로 역할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농산물을 매개로)

도쿄 대도시권 도시낙농의 재편과 상품화

-하찌오우지·마찌다시의 사례-



하찌오지시·마찌다시의 낙농경영의 실태

- 경영기반의 약체화
 - 우유값 침체에 의해 낙농가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음
 - 기타 축산물(육용젖소)나 농장부산물(퇴비)가격도 침체
- 사료기반의 약체화
 - 적은 자작농지면적을 위해 구입사료에 대부분을 의존
- 부동산수입에 의존한 경영
- 높은 고정자산세
 - 축사·퇴비사·격납고 등은 택지 수준의 과세대상
- 주변의 택지화에 따른 주변주민과의 알력(축산공해)

도시근교에서의 낙농경영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 곤란해짐

교육의 장으로서의 근교 낙농

- 사회과 학습(14호의 농가가 수용)
- 여름방학 낙농체험(마찌다시)
-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학습체험효과
- 가족에 대한 간접 효과



근교낙농의 도시주민의 참가

이소누마목장의「저지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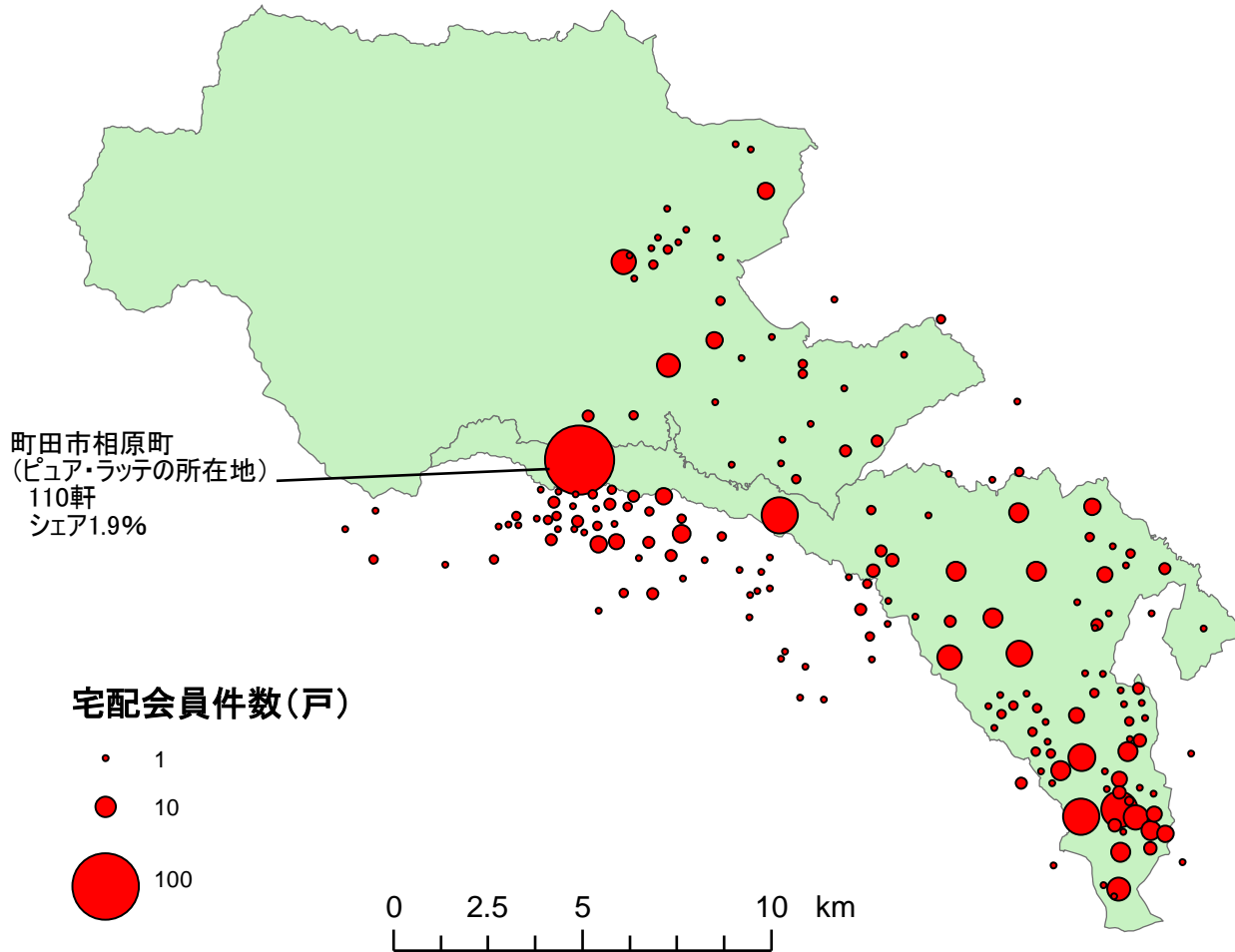
- 수확축제나 바베큐대회 등에 낙농장을 개방해서 도시주민과의 융화를 꾀한다 (서포터를 늘림)
- 도시주민: 비일상적인 체험의 장 또는 여가공간으로 인식
- 낙농가: 주변환경의 보전이나 도시주민에 배려
- 낙농가와 지역주민의 이익이 공유되는 장으로 낙농장을 존속

우유판매조직으로의 도시근교 낙농



- 마찌다 아이스공방라떼 (젤라또 판매)
- 도쿄 밀크공방 퓨어 (우유·마시는 요구르트 판매)
 - 마찌다시내의 낙농가가 보조금을 이용해 공동으로 설립 (라떼는 1994년, 퓨어는 1998년)
 - 퓨어는 약700개의 회원에게 저온살균우유를 중심으로 택배 (회원은 마찌다시·사가미하라시·하찌오우지시가 중심)
 - 배경에는 「자신들이 만드는 우유가 대기업에 헐값에 팔려 누가 마시고 있는지 모른다」는 상황이 있다

우유판매조직으로서의 도시근교 낙농 —다마의 우유 브랜드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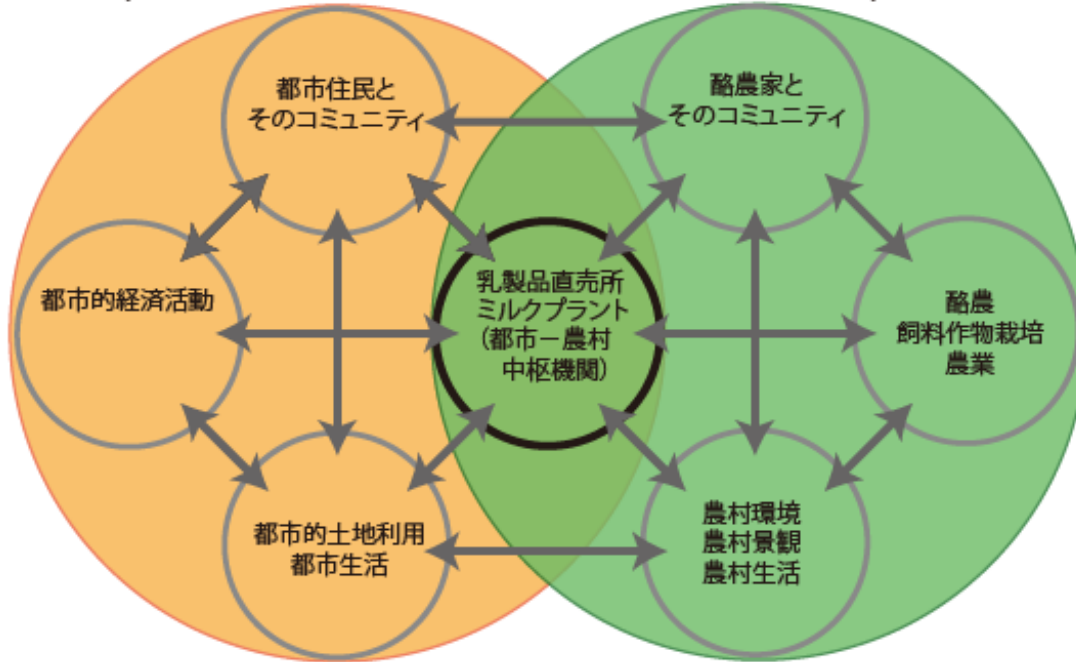


「도쿄 밀크 공방 퓨어」택배회원의 지역별 분포

「도쿄 밀크공방 퓨어」자료로부터 작성. 회원은 주소가 판명된 것만 표시

urbanity(都市らしさ)

rurality(農村らしさ)



근교낙농의 rurality의 재생과 지역 브랜드의 지속성 모델

- rurality와 urbanity의 공존에 의해 근교낙농이 사회적으로 지속
- 근교낙농의 지속시스템: 중추기관의 공동이용(유제품의 직매소·저온살균우유의 택배에 의해 가공장이나 판매장을 공통으로 이용), 커뮤니티 간의 교류(수확축제 등에 의해), 생활문화의 교류(학교교육이나 지역교육 등에 의해 각각의 생활을 이해)
- rurality와 urbanity의 교류채널의 다양화: 안정성

도쿄 대도시권의 도시농업의 상품화 및 그 지속성

- ① 농촌의 생태적요소·경제적요소·사회적요소의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 도시농업이나 rurality는 지속·발전한다.
- ② 생태적요소, 경제적요소, 사회적요소 중 하나를 중추기관으로 강화해 그 강화의 영향이 다른 요소에 미쳐, 요소간의 유기적인 연계로 도시농업이나 rurality가 재생한다.
- ③ rurality재생의 열쇠가 되는 중추기관이 도시다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공존함으로써 도시농업은 urbanity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공존하며 지속된다.